

SF '연극'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소고



연극 <대리된 존엄> ACC,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극 <거의 인간>, 극단미인 제공, (c) 윤현태 작가

발표자: 전지니(한경국립대학교)

목차

- 01 | 최근 SF연극의 경향
- 02 | SF연극 연구 및 비평 현황
- 03 | 논의점 1: 'SF연극', '과학 연극', '포스트휴먼연극'
- 04 | 논의점 2: 이론과 실제의 간극
- 05 | 논의점 3: 익숙함과 기대치 사이
- 06 | SF연극 논의의 과제

01. 최근 SF연극의 경향

연구 배경

- SF, 포스트휴먼을 표방한 연극의 증가

1. 소재의 확장: 팬데믹 이후 SF를 표방하는 연극, (근)미래의 재난 및 비인간을 다루며 사물, 동물을 극의 중심에 배치하는 연극이 늘어남. 국내 창작물뿐 아니라 번역물, 페스티벌을 통해 해외 공연이 소개되고 있음.

2. 제도의 이용: SF연극제의 지속, 신진연극인 중심의 서울미래연극제에서 '미래'를 다룬 작품 증가.

3. 연극의 형식: '재현' 중심 연극에 대한 회의와 관련해 무대와외의 거리 확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물의 전경화, 메타연극, 이머시브 연극 등 형식적 실험이 잦아짐.

→ SF'연극'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외 2010년대 중반 블랙리스트, 미투 운동 등 연극계 내외적 사안과 관련해 기존의 연극, 제작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계된 측면이 있음. 동시에 사회적 현안을 상기시키는 지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남.

01. 최근 SF연극의 경향

연구 목적

- SF연극 혹은 포스트휴먼 연극이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창작 경향을 확인함.
- SF연극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을 논의함.
- SF연극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함.

연구 범위

- 팬데믹 이후 공연된 SF 연극 창작 경향.
- SF, 포스트휴먼을 표방한 텍스트, 비평 및 연구 경향(뮤지컬의 경우 논의 대상에서 제외함, 단 <어쩌면 해피엔딩>, <라이카>, <천 개의 파랑> 등 SF뮤지컬로 범주화 할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

표1) 2020~2026년 2월 SF 및 과학을 화두로 한 연극

- 해당 목록에서 타공연 장르는 제외함,
- 기후위기, 재난 등의 소재나 비인간을 전경화한 경우도 ‘미래라는 화두’ 혹은 ‘과학적 상상력’ 과 무관할 경우 일단 목록에서 제외함.
- 영미권 학자가 만든 목록("The Internet Science Fiction Theatre Database)의 경우 판타지, 호러 장르까지 포괄함.

2020년 공연 현황

작품명(초연 연도)	제작진	소재	특이사항
<싱팅 인 어 룸>(2020)	장우재 작, 연출	재난. 마인드 업로딩	
<Anima>(2020)	변영후 작, 연출	재난, 안드로이드	제5회 SF연극제 상연작
<선사인 프로젝트>(2020)	최서은 작, 연출	비출산, 뇌 이식	
<인구론>(2020)	최준호 작, 정형석 각색 · 연출	외계인, 종(種)간 로맨스	
<변형 K는 소녀다>(2020)	강현욱 작, 연출	뇌 이식, 사이보그	
<불꽃놀이>(2020)	김민정 작, 남인우 연출	시간여행, 제의	온라인 상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2020)	김보영 원작, 전인철 연출	우주여행, 로맨스	한국 소설 원작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2020)	김도영 작, 장한새 연출	청소 로봇, 노동권	
<팜 Farm>(2020)	마츠이 슈 작, 김정 연출	유전자 재조합, 장기 이식	

작품명(초연 연도)	제작진	소재	특이사항
<Anima>(2021)	변영후 작, 연출	재난, 안드로이드	
<A, 아이>(2021)	홍사빈 작, 연출	재난, 메타 휴먼, 연극하기	
<너를 만난다>(2021)	구도윤 작, 서정완 연출	게임, 계급화, 스틸러	이머시브 시어터
<액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2021)	정진새 작, 연출	로봇배우, 연극하기	일인극, <액트리스 원> 속편
<괴물B>(2021)	한현주 작, 손원정 연출	산업재해, 프랑켄슈타인, 계급화	
<미숙의 쿠키상자>(2021)	이주호 작, 이지수 연출	산업재해, 프랑켄슈타인, 여성괴물	
<SPACE: 연극>(2021)	박세련 구성, 연출	우주 여행, 연극하기	이머시브 시어터
<유니온>(2021)	이철용 작, 박세련 연출	핵전쟁, 노동, 시간여행	
<머핀과 치와와>(2021)	신효진 작, 임성현 연출	데이터, 알고리즘, 변신	
<나의 우주에게>(2022)	김마딘 작, 홍순섭 연출	우주, 이별, 성장	신춘문에 당선작
<뉴트리얼 딜레마(2022)	구지수 작, 김상윤 연출	자율주행, 세대	
<기후비상사태: 리허설>(2022)	전윤환 작, 연출	기후 위기, 인류세	
<달, 달 무슨 달>(2022)	김소연 작, 안수빈 연출	행성 여행	
<안내방송>(2022)	최형우 작, 최유리 연출	재난, 부조리	
<리메이크 85250>(2022)	정형석 작, 연출	안드로이드, 로봇 불법 복제	제7회 SF연극제 상연작
<내일의 주인공>(2022)	김여진 작, 진성웅 각색 및 연출	지구 여행, 저출산	
<매미>	이제호 원작, 유수미 각색 및 연출 유수미	이명, 타자와의 접촉	
<오아시스>(2022)	설유진 작, 연출	한국 근현대사, 연극하기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구나 광 소리 한번 없이 흐느낌으로>(2022)	네빌슈트 원작, 장한새 연출	핵전쟁, 멸망	
<파포스>(2022)	인공지능 시아 작, 김제민 연출	인공지능 창작물	
<A.I.R: 새가 먹던 사과를 먹는 사람>(2022)	장우재 작, 연출	재난, 안드로이드, 계급화,	
<순교>(2022)	호시 신이치 작, 전인철 연출	죽음, 사후세계	일본 소설 원작
<태양>(2022)	마에카와 토모히로 원작, 김정 연출	바이러스, 신인류, 계급화	일본 소설 원작
<지상의 여자들>(2022)	박문영 원작, 전인철 연출	젠더, 동물권	한국 소설 원작
<사라의 행성>(2022)	김마딘 작, 신진호 연출	우주, 청소년, 성장	
<일단 SF>(2022)		<프리미엄 유기농 복숭아>: 지구 온난화, 노동, 계급	
-<프리미엄 유기농 복숭아> / <우주를 여행하는 라이카가남긴 마지막 메시지>	황나영 · 성재현 작, 이정연 연출	<우주를 여행하는 라이카>: 안드로이드, 기억, 데이터	에피소드 구성
<윙키>(2022)	김도영 작, 장한새 연출	돌봄 로봇, 로봇 윤리	
<발사 6개월 전>(2022)	김진성 · 주봄 · 강신철작, 김진우 각색 및 연출	우주 개발, 토론	이머시브 시어터
<발사 3시간 전>(2022)	주봄 작, 강신철 각색, 박성찬 연출	우주 개발, 토론	
<[Bae]: Before Anyone Else 어느 누구보다 먼저>(2022)	임선영 작, 손현규 연출	종 간 관계, 러다이트 운동	신춘문에 당선작

작품명(초연 연도)	제작진	소재	특이사항
<마이 아바타>(2023)	공동창작, 이비안 연출	가상 세계	제8회 SF연극제 상연작
<시냅스(Synaps)>(2023)	박민경 작, 임유진 연출	기억 조작	
<케어>(2023)	오탕 작, 연출	복제인간	
<인간수업>(2023)	정형석 작, 연출	로봇 배우	
<애프터 마리나>(2023)	변자영 작, 이가을 연출	멸망, 생존자, 바이러스	
<울지마 녹슬어>(2023)	김나정 작, 최창근 연출	멸망, 생존자	
<Let's go to my star>(2023~2024)	프로젝트 뉴 플래닛 공동 창작 및 연출	외계인, 자본주의, 돌봄	총 3편, 시리즈물
<어부의 핵>(2023)	김도영 작, 장한새 연출	멸망, 개체 간 연결	
<당신에게 닿는 길>(2023)	한민규 작, 연출	재난, 연극하기	
<제로실드제로>(2023)	이에본 작, 이은비 연출	기후위기, 주거 불안	
<로켓캔디>(2023)	강훈구 작, 연출	유토피아, 청소년, 심리	
<조이>(2023)	이왕혁 작, 연출	가상현실, 범죄	
<우주로 간 스킨답서스>(2024)	김평조 작, 김정환 연출	우주, 이별, 성장	
<멋진 신세계>(2024)	올더스 헉슬리 작, 김세환 각색 및 연출	통제 사회	제9회 SF연극제 상연작
<수집가들>(2024)	이주영 작, 정육현 연출	멸망, 환경	
<불멸의 태봉씨>(2024)	공양제 작, 연출	인간 강화	
<우주로 가는 길>(2024)	김성민 작, 연출	종 간 관계, 외계인	
<인간>(2024)	베르나르 베르베르 원작, 신수연 연출	생존자, 인간성	
<딜(DEAL)>(2024)	오탕 작, 연출	생존, 외계인	
<지옥에서>(2024)	한민규 작, 한민규 연출	재난, 계급화, 난민	한국 소설 원작
<천 개의 파랑>(2024)	천선란 원작, 장한새 연출	안드로이드, 장애, 소수자	
<전기 없는 마을>(2024)	김연민 작, 연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캐빈방정식>(2024)	김초엽 원작 엄예술연출	시간의 상대성, 장애	한국 소설 원작
<거의 인간>(2024)	구두리 작, 김수희 연출	AI 저작권, 인공자궁	
<아이들>(2024)	루시 커쿠우드 작, 전인철 연출	원전 사고, 과학자, 후속세대	
<대리된존엄>(2024)	문정연 작, 최여림 연출	대리모, 인공자궁	
<사람은 좋지만 인간은 싫습니다>(2024)	김대근·장우재 작, 장우재 연출	안드로이드, 종 간 관계	<A.I.R>의 스피노프
<시물라시옹>(2024)	최양현 작, 이태린 연출	가상현실, AI, 애도	
[창작공감: 작가] <모든>(2024)	신호진 작, 김정 연출	AI 디스토피아, 자유의지	
<땅 밑에>(2024)	김보영 원작, 장영 각색, 정혜수 연출	지하생활, 미지의 세계	체험형 공연, 한국 소설 원작
<함수 도미노>(2024)	마에카와 토모히로 작, 이기쁨 연출	비가시적 존재, 불평등	일본 소설 원작

작품명(초연 연도)	제작진	소재	특이사항
<지구 소멸 4초전>(2025)	시바 유키오 원작, 각색 및 연출 김진선	지구 탄생과 멸망, 우화	
<워크맨>(2025)	최양현 작, 이태린 연출	안드로이드, 우울증, 안락사	
<초록의 찬란>(2025)	임선영 작, 손현규 연출	안드로이드, 종 간 관계	
<그리프봇>(2025)	황수아-조은주 작, 손현규 연출	망자와의 조우, 애도	
<맵핑히틀러>(2025)	최양현 작, 이태린 연출	통제 사회, 미디어	
<억압 받는 비인간을 위한 103개의 모노로그>(2025)	정진새 작, 연출	고전 패러디, Chat GPT	
<스вай프!>(2025)	김상훈 작, 연출	고전, 사물, 다중 네트워크	
<레몬(LEMON)>(2025)	유지수 작, 연출	마인드 업로딩, 의식 통제	
<에덴의 섬>(2026)	이지인 작, 서정 연출	사후 세계, 우주	
<풀(POOL)>(2026)	이세희 작, 부새롬 연출	기억 제거술, 참사, 애도	

01. 최근 SF연극의 경향

SF연극 창작의 흐름

- 한국 SF연극의 시초는 진우촌의 <두뇌수술>(1945)로 간주(계급 구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혼재-전지니, 2019). / 단 최근 미국 내 출판 논문은 SF연극의 시초를 아리스토파네스의 <새>라고 간주하며, 셰익스피어의 <태풍>까지 함께 논의함.
- 정부의 경제 정책, 이데올로기, 교육정책과 조응하여 1960년대부터 청소년 SF소설 창작이 활발해진 것과 달리 연극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없음. 스푸트니크 쇼크 후 북한에서 인형극 <달나라를 찾아서>(1961)가 발표된 것과 달리 남한에서 SF'연극' 텍스트는 확인할 수 없음. 국립극장에서 <R.U.R.>을 각색한 <인조인간>(1970)을 공연한 이후 밀레니엄 시기까지 SF라 할 만한 공연은 찾아볼 수 없음.→ 연극이라는 장르와 SF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 스펙터클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평론 집단 혹은 매체에서 SF연극이라는 명명이 등장한 것은 1999년(김승옥, 1999; 김명환, 1999).
- 2010년 이후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한 연극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고 매체에서도 이를 주목함(권재현, 2010).

01. 서론: 무대 위 포스트휴머니즘과 페미니즘

SF연극 제작의 흐름

- 창작극: 팬데믹 이후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작가들이 SF장르를 집필함(김마딘, 임선영, 조은주 등), 기존에 SF를 만들지 않던 극단에서도 미래사회를 경유해 현대인에 대해 사유함(예술창작집단 콤마엔드 등), SF를 극단의 정체성 중 하나로 내세우기도 함(돌파구, 비밀기지, 공놀이클럽 등). 창작극의 경우 평행우주, 마인드업로딩, 재난 등 다른 분야 SF에서 다루는 소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SF'연극'의 경우 시각적 구현이라는 측면에 치중하지 않고 메타연극적 요소(미래 사회와 함께 지금 이곳에서 연극을 한다는 행위를 고찰) 강화함.→ 최근에는 창작극이 압도적으로 늘어남.
- 국내 원작 각색: 김초엽(<케빈 방정식>), 김보영(<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땅 밑에>), 윤이형(<결투>), 박문영(<지상의 여자들>), 천선란(<천 개의 파랑>) 등의 작품이 무대화, 저작권 문제로 소설의 공연화가 많지 않음.

01. 서론: 무대 위 포스트휴머니즘과 페미니즘

SF연극 제작의 흐름

- 해외 원작 번역/각색: 번역-각색의 경우 일본 작가의 작품이 선호되는 추세. 일본 작가 마에카와 토모히로(<산책하는 침략자>, <태양>, <하늘의 적>, <함수 도미노>)의 작품이 빈번하게 극화됨(팬데믹 기간 중 마쓰이 슈의 <팜 Farm> 공연), 역시 일본 작가인 오카다 토시키의 사고 실험적 작업이 한국에서 공연되기도 함. 역시 저작권료 및 출판사의 규정에 따라 국내 공연 및 자유로운 각색이 쉽지 않음.
- 상대적으로 팬데믹 이후 SF고전을 무대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스트루가츠키 형제의 <노변의 피크닉>을 차용한 <공터의 에티켓> 등에 주목할 수 있으나 원작의 색깔은 찾아보기 어려움). 2020년 이후 영미권 작가의 희곡을 번역해서 공연(<링스>, <아이들> 등).
- 타장르와의 차이점은 SF 혹은 포스트휴먼을 표방한 창작자들이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함께 화두로 담고 있음. 또한 SF연극의 경우 재현에 천착하지 않음. 더 적극적으로 사회 현실(사회적 참사, 페미니즘, 장애인 권리)과 연계되기도 함.

02. SF연극 연구 및 비평 현황

SF연극 연구 현황

- 비인간 주체를 다룬 포스트휴먼 연극의 서사 혹은 극작술(김옥란, 2024; 김민조, 2022), 페미니즘 등 연극의 담론(전지니, 2025), 인간중심주의 비판에서 시작한 포스트 휴머니즘 연극의 특징(허재성, 2025), SF 작업을 진행하는 연출가(전지니, 2024), 텍스트 분석(전지니, 2022), 공공기관-지자체의 지원 정책(전지니, 2021), 한국 SF연극의 역사(전지니, 2019), 일본 SF의 상상력과 극작술(이흥이, 2021; 최우정, 2025), 히라타 오리자의 작업을 중심으로 로봇 배우를 다룬 연극(주현식, 2017; 김영학, 2018; 박연주·오세곤, 2019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영미권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새>에서 SF연극의 기원(비인간 존재, 하늘 도시, 정치 풍자)을 찾고, "liveness"라는 가변성이 연극의 특징이 될 수 있으며, 사고실험을 진행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Science Fiction Theatre and Performance"의 범주 하에 논의하는 연구가 발표됨(Liz Fairchild, 2025)
-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연구의 경우 텍스트, 작가, 담론을 넘어 로봇, 동물, 곤충, 미생물 등 무대 위 '비인간'을 다룬 작품 역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연극이 분석 대상이 되면서 서사를 넘어 극장에서 미래를 묘사하는 방식, 인간이 비인간을 연기하는 방식, 사물이 전경화되는 방식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음.

02. SF연극 연구 및 비평 현황

SF연극 비평 현황

- SF연극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은 그 흐름을 '트렌드'로 간주하고 유의미하게 보는 언론의 역할(김미영, 2018; 임석규, 2023; 박정선, 2024; 이지윤, 2025) 및 국공립기관과 지자체의 기획(ACC SF연극 시리즈, 국립극단 작품개발 사업 [창작공감: 연출] '기후위기와 예술', '과학기술과 예술 등)이 있음.
- 연극계 내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논의(이성곤, 2018),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창작 및 AI를 활용한 공연(김재민, 2023; 엄현희, 2023)가 진행됨.
- 주로 SF를 표방한 텍스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주로 소재적인 측면과 극작술을 논하거나 연출법(인공지능이 개입하는 범위, 영상 및 소품 활용, 배우의 연기 등)을 논함.
- SF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기후 위기를 다루거나 이머시브 시어터의 형식, AR, 프로젝션 매핑 등 기술을 도입한 연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이를 'SF연극'이라는 범주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극의 화두를 제한하는 것인지, 혹은 범주화하여 논의를 확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어떻게 명명하고, 개념화할 것인가.

03. 논의점 1: 'SF연극', '과학 연극', '포스트휴먼연극'

SF연극, 과학연극, 포스트휴먼연극

- **과학환상극문학:** 북한에서는 'SF'를 '과학환상문학'이라 명명함(남한의 '공상과학문학'과 비교할 수 있음). 과학환상 '극' 문학은 "무대 위에 앞날의 생활을 그려 보일 것을 전제로 하는 문학"으로 극문학의 무대적 조건성이 고도의 극적 집중화와 집약화를 요구하며 극적 극면을 전면으로 내놓고 그 외 생활은 생략한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환상소설과 구분됨(황정상). ** 과학환상극문학에 정확히 대응되는 개념이 남한에는 없음.
- **SF연극:** '밀레니엄'을 전후로 'SF연극'이란 명명이 등장함.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무대 위에 구현하는 연극. 반드시 기술적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류세와 인간중심주의 관련 '사고 실험'을 도모하는 경우 SF연극의 범주하에서 논의할 수 있음(전지니). ** 과학적 상상력은 어디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가.
- **Science Fiction Play/Theatre:** 영화, TV 시리즈를 제외한 SF공연을 의미함. Science Fiction and the Theatre(Willingham, Ralph, 1993)는 각색물을, Internet Science Fiction Theatre Database(Christos Callow Jr)는 호러, 판타지, 대안세계 개념을 포괄하는 작품(연극, 뮤지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함. **SF와 판타지의 경계를 흐림, 동시에 SF연극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단 이 데이터베이스는 영국 작품 중심이며 동구권, 아시아 국가의 SF 등은 포괄하지 않음. (21세기 작품은 165편, 호러, 판타지, 과학물이 아닌 'SF'로 구분된 것은 138편임.)

03. 논의점 1: 'SF연극', '과학 연극', '포스트휴먼 연극'

SF연극, 과학연극, 포스트휴먼연극

- **과학연극:** “인간 너머의 관점으로 인간을 다시 바라보는 연극”을 과학연극, “새롭게 등장한 과학기술을 경유하여 인간을 다시 바라보는 연극”을 SF연극으로 구분함. 이 같은 분류에 따르면 SF연극은 과학연극과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지만,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하는 작업이며, 과학연극의 개념이 좀 더 포괄적임(연출가 장우재와의 인터뷰 중, 2024). ** 이 경우 ‘사변문학’으로서 SF의 성격을 배제할 수 있음.
- **포스트휴먼연극:** 비단 근미래를 상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비판하며 다양한 비인간을 내세운 연극을 총칭함(허재성, 2025-SF연극과의 차이점을 부각). 이 경우 미래 사회를 형상화하지 않더라도 기후 위기 관련 내용을 다룬 경우나 사물을 전경화하는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음. 비인간연극(비인간(로봇, 동물, 곤충, 포자, 사물 등)을 무대에 배치해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질문하는 연극(김옥란, 2026))을 포괄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음. ** 포스트휴머니즘은 담론임, 연극만 다른 장르와는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 SF연극은 반드시 기술을 경유해야 하는가. SF연극이 포스트휴먼연극과 대치되는 개념인가.

03. 논의점 1: 'SF연극'과 '포스트휴먼 연극 사이'

SF연극, 과학연극, 포스트휴먼연극

■ 왜 'SF연극'이라는 개념 혹은 명명은 정착되지 않는가.

1. (소재, 대상) 최근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다큐멘터리 형식을 도입하거나 동물, 사물을 전경화하는 연극적 실험이 늘어나는데, 이 작품들은 '사고 실험'을 시도할지라도 미래가 아닌 현실에 맞닿아 있음. SF연극을 미래, 혹은 기술을 경유하여 이해할 경우 이 같은 작업을 포괄할 수 없음.
2. (관객의 기대) SF연극을 내세울 경우 관객이 (관습적으로) 시각적 특별함을 기대함. SF'연극'의 경우 시각적 측면에 호소하기보다 청각적 효과, 배우의 연기/신체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관객의 기대지평과 달라질 수 있음.
3. (연극계 내 비중) 배우의 현존에 호소하는 연극의 경우 가장 인간 중심적인 예술. SF의 비중이 늘어나며 소재적, 형식적으로 인간의 존재가 후경화될 수 있으나 이 같은 연극의 비중이 적음.

04. 논의점 2: 이론과 실제 사이

SF연극 연구/비평의 방법론

- 다르코 수빈의 노붐(novum): 애초 다르코 수빈의 논의가 브레히트의 '이화'/'낯설게 하기'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선, 방법, 소재를 경유해 극 중 배경과 무대를 낯설게 만들과 관객의 사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음. 기술이 없어도 SF는 가능함.
-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머니즘, 도나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논의: '탈중심화'와 포스트휴먼 주체, 유목적 주체에 대한 브라이도티의 사유, 인간-동물-기계의 경계를 해체하는 탈정체성에 대한 헤러웨이의 사유를 차용함.
- 브루노 라투르, 카렌 바라드, 캐서린 헤일즈와 신유물론: 근대성에 대한 회의, 네트워크의 주체로서의 비인간, 비인간 물질의 행위 능력에 대한 인지, 사물의 행위성에 대한 상상, 누가/무엇이 행위자가 될 것이냐는 물음.
- 들뢰즈-가타리: 비인간을 연기하는 배우의 동물-되기, 기계-되기에 대한 접근(예: 연극 <비 비 비>에서 꿀벌-되기 작업을 통해 인간의 근육에 새로운 기억을 이식시키고 기계 코러스와 함께 연결의 감각을 인지하는 과정(김옥란, 2024))

04. 논의점 2: 이론과 실제 사이

SF연극 연구/비평의 방법론이 봉착할 수 있는 문제들

- 이론과 텍스트의 괴리: 이론에서 출발하여 공연 텍스트를 분석할 경우 실제(감각되는 현장)와 부합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창작 역시 이론에서 출발할 때 관객과 불화하거나 설명적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상업극과 (비)상업극 사이: 상업극 혹은 상업극과 (비)상업극 사이의 경계에 있는 텍스트의 경우 좀 더 직관적으로 소재에 접근함. 이 같은 흐름은 과학, 철학 방법론보다는 미디어 자장 안에서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
- 타장르와 마찬가지로 이론이 식견을 넓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개념을 드러내고자 하는) 대본과 (의미가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공연과의 거리가 있음.

05. 논의점 3: 익숙함과 기대치 사이

평단, 심사위원의 기대치

- SF, 포스트휴먼 연극에 대한 반응 → 주목할 만한 시선 혹은 트렌드에 부합하는 연극이라는 반감, 소설이나 영화와 달리 아직 '장르'로 간주되지 않음, 소극장 혜화당의 'SF 연극제'의 경우 장르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으나 SF연극이 '장르'로 여겨지지 않으며 일부 창작자들 역시 이 같은 고착화에 대한 반감이 있음.
- 타장르의 고전을 기준으로 '완성태'로서 SF연극을 상정하고 상상력의 한계를 지적함. "한국에는 SF연극이 없다." →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중복될 수밖에 없음, 미국에서도 대화극 <링스> 정도를 제외하면 할리우드 영화의 내러티브 혹은 고전을 극장에서 구현한 공연 비중이 큼.
- 팬데믹 이후 대중문화의 흐름이 연극적으로 확장된 결과물로서의 문제를 언급함. → SF 혹은 포스트휴먼을 화두로 내세운 공연이 연극의 성질 혹은 고유성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

05. 논의점 3: 익숙함과 기대치 사이

평단, 심사위원의 기대치

1. “둘째, 가상 세계 소재가 많아지고 그것이 추상화되어 간다는 것.
셋째, SF 설정이 더욱 ‘현재’로 내려왔다. **이제 SF라서 신기한 건 없다. 여전히 ‘그래서 뭐?’가 요구된다.** 아직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에 대한 빠른 설정이 있긴 하지만 많은 작품들이 설정에 짓눌리지 않고 ‘할 말’을 드러내고 무적이었다.(2026 동아일보 신춘문예 심사평 중)” → 다만 2024년 이후 SF로 분류할 만한 당선작은 찾아볼 수 없음.
2. “미래 배경의 작품은 설정에 함몰되지 않고 지금의 관객에게 울림을 주는지 더 엄격히 보았다. 일반적으로 지원서 상 흔해진 미래 담론 포스트휴먼 기술 사물 동물 환경 기후 위기 생명윤리 인공지능 사회 등을 넘어 **이제는 아직 현재에 발목 잡혀 있는 관객에게 연극적으로 분명하게 가 닿는 작품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026 제47회 서울연극제 1차 심사평 중)→ 1차 심사 선정작 14편 중 미래 사회, 포스트휴먼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은 없음.

05. 논의점 3: 익숙함과 기대치 사이

관객의 기대치

- 스펙터클에 대한 기대치: SF연극에서 활용하는 영상이나 기술이 다른 장르나 대형 퍼포먼스에 비해 소박함.
- 극장에서 느끼고 싶은 '다른 감각': 시각에 호소하기 어려울 때 이머시브 형식 혹은 게임의 룰을 차용하지만 연극의 구조가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나 개입을 하기 어려움.
- SF'연극'에서 찾고 싶은 메시지: 비상업연극의 경우 대학로 중심으로 움직이는 관객은 공연의 의미에 집중함. 과학적 상상력에 입각한 배경, 소재가 소비되기보다 동시대 담론과 연계하여 빚어낼 수 있는 사회적 의미망을 읽어내기 바람.

06. SF연극 논의의 과제

남는 논제들-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 SF연극이 차용하는 기술: 현재로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쓰기(<비인간을 위한 103개의 모노로그>), 3D 오디오 기술(땅 밑에>), 프로젝션 맵핑 기술(<맵핑 히틀러>), 불완전한 로봇(<천 개의 파랑>)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의 범위는 크지 않음. 결국 대규모 뮤지컬이 아닌 이상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것은 불완전함.
- SF '연극' 논의 시 부각할 수 있는 것: 공간의 구성, 극장 안의 사운드, 관객과의 상호 작용, 비인간을 연기하는 배우의 발화와 신체, 사물의 배치 방식, 이질적인 것의 배치에서 빚어지는 귀여한 감각, SF가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지평 등→ 극장 안의 가변성(새로운 존재, 공간 창조)이란 부분 / 소재적으로는 다른 장르와 겹치는 지점이 많기에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
- 연구 범위의 확장: 일본(일상과 SF, 멜로드라마의 접합), 중국(프로파간다와 연계된 대형 공연), 영미권(고전의 연극화(*Solaris* 등, 브로드웨이-오프브로드웨이의 경우 담론 및 형식의 진보성 면에서는 정체되어 있으나 영국에서 SF로 분류될 법한 연극들이 공연되고 있으며 영국, 시카고 등에서 SF연극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음)과의 비교 연구.

06. SF연극 논의의 과제

남는 논제들-무엇에 대해 논의할 것인가

- 미래 사회의 형상화, 인공지능 활용, 기후 위기와 동물권, 사물의 행위성 등을 포괄하는 모든 사고 실험 시도를 'SF연극'이라 명명해도 괜찮은가. 연구자별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 담론의 형성을 위해 더 적절한 명명을 제안할 수 있는가.
- 비단 연극만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다른 장르와 달리 SF가 연극 내 특정 '장르'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SF연극'에 대한 거부감과 기대치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